

존귀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1-14

요절말씀 9-10: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국제 수양회와 “하나님의 나라 -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과 핵심”이라는 수양회 주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8월 11일 오늘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19년 전 오늘 밤에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진귀한 자연현상을 보았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개기일식을 보았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더 놀라운 장면,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수 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경배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존귀한 분이신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세상 만물들의 가치는 퇴색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과 경배의 밤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개인적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모여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천국, 그 곳에서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를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민족에서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장 성경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 계시록 4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최고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보좌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다같이 함께 하나님께 절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안팎으로 쓰여있고 7개의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인류의 마지막 회복을 가져올 미래의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는 그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힘있는 천사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였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침묵뿐이였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해볼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늘날 가능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라이트 형제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가능한 일들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 그것은 두루마리를 펴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 절을 보면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울고 또 울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요한은 “많이” (KJV), 그리고 아주 “비통하게” (NLT)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살았던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없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심했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수치스러운 불의의 현장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UN 인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요르단 북부에 있는 자타리 난민 수용소에 파견되었습니다. 폭발로 찢어지게 된 집에서 구출된 5 살짜리 남자아이나 목 아래부분이 완전히 마비된 6 살 짜리 여자아이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수용소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울어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5 장이 4 절에서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절에서 끝난다면 아무 희망없는 끝없는 흐느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들중의 한명이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 장로가 요한에게 말한 것을 보십시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 장로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르켜 주었습니다. 아, 이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울지마라! 보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사야 43:19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의 위치가 아니라 강자의 위치에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자로서 메시아는 왕입니다. 사자를 생각할 때 힘, 통치권, 용기, 위협적인 모습 그리고 으르렁~ 하는 소리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신다면 아프리카의 빅 파이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빅 파이브는 코뿔소, 들소, 코끼리, 표범 그리고 사자입니다. 요한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정의에 기초하여 보호하고, 입김으로 사악한 자들을 죽여서 벌하고,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대머리 독수리,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동물은 곰, 영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 그리고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보통 어린 양이 아니라 – 도살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네 생명들과 24 장로들에게 둘러싸인 보좌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어린 양이 도살당했으나 여전히 살아 서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은 완전한 힘과 전능함을 상징하는 일곱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상징하는 일곱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5 절과 6 절은 사자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사자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자가 어린 양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와

그러면 누가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약성경에 39 번이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9 절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많은 상처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작가는 말하기를 “천국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행적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한 흔적들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 인해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했습니까? 7 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한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첫 째, 어린 양은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9 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흔히 그 사람이 가진 부나 지위 –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나 하는 것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죽으셨기 때문에 존귀하십니다. “죽으셨다 slain”는 것은 말 그대로 “도살당하다” “강제로 죽임을 당하다” 또는 “잔인하게 도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단순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학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약해지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야만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자신의 권좌를 버리고 세상 사람의 웃을 입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죄인된 이름없는 백성들을 위해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17)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기꺼이 값을 치루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시기 위한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9 절 후반절은 말씀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하던 때부터 죄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는 순전한 어린 양의 피라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당신이 흘리신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국 백성들을 사시고 당신만이 회복된 천국에 합당한 통치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 예수님 자신이 비싼 희생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곳 수양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참석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에는 7,079 개의 언어가 있고 약 74 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와. 심지어 오늘도 저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아멘!

둘째, 어린 양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10 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도록 하게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신분입니다. 저는 1997년에 캠퍼스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성경선생으로서 저는 제 영적 신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나? 결국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고 하나님과 성경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뜻한 출발을 하려고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영국까지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셔서 제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없이 가졌던 헛된 소망을 버렸습니다. 제가 받은 소명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간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의 진정한 영적 신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패, 부족간 갈등, 부도덕으로 고통하는 우간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영적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습니다. 우간다 크리스천 대학 개척 역사를 섬기면서 오해받고 쫓겨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를 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양성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캠퍼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왕노릇 하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도 당신의 나라에서 저희를 제사장들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 째, 어린 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본문 말씀 11-14 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수 천, 수 만의 많은 천사들을 보았고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보좌와 살아있는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천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장관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로 시작한 경배는 이제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마지막 축하의식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이 웅장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수명을 다한 후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두셨던 원래의 소망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속박에서 구하시고 원래대로의 상태와 목적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합창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이 본문 말씀들은 가장 위대한 예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가 단지 몇 명만 참석하는 작은 예배일지도 모르지만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우리는 위대한 예배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과 제가 수많은 천사들과 다른 신자들과 함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에게 바치는 완전한 일곱 차원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무가치한 것들, 예를 들면 재산이나 직업 아니면 스스로 경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상숭배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무언가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전능한 왕이시요 구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단순히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사역장,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전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가운데 영원히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Listen to English Message**

<http://hiskingdom2018.org/about-us-basic/accordions-2-2/speakers/>